

2021년도 첫 이사회, 화상회의로 열려



2월 4일 오전 10시 반, 올해 첫 사우회 이사회가 Zoom을 통한 화상회의로 열렸다. 19명(위임 2명)의 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2020년도 사우회와 문화보험의 결산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 2021년

도 사우회와 문화보험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 전직 회장의 고문 추대 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처음 시도된 영상회의였지만, 영상회의에 경험이 많은 김승월(편제)이사가 사전에 임원들과 연습통화를 해준 덕분에 진행에 있어 큰 불편이나 지장은 없었다. 이사회에 앞서 1월 29일에는 한윤희, 이상근 두 감사가 예,결산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2021년도 정기총회, 서면으로 진행 완료

사우회 정관 제17조 2항에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 회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지만, 방역지침 상 다중이 모이는 일이 어려운 상황인지라 정기총회를 작년과 같이 서면으로 진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2월 9일 2020년도 결산안, 2021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회계자료와 전 회장 고문 추대 건 등의 의안자료와 동의서가 회원들에

게 e-그린 우편으로 발송됐고, 2월 16일부터 카톡, 팩스, 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했다. 2월 28일 현재 438명의 회원들이 동의서를 보내줘서 “재적회원 1/3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요건을 갖췄으므로 2020년도 결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이연헌 전 회장의 고문 추대 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발전 기금을 내주신 분들(1월 10일 이후)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bsau.com>)에 있습니다

- | | | |
|-----------------|----------------|-----------------|
| • 표재순(편제) 100만원 | • 석남수(기술) 30만원 | • 김기연(ANN) 10만원 |
| • 전종건(관리) 100만원 | • 이순임(관리) 30만원 | • 유철환(편제) 10만원 |
| • 윤여복(보도) 88만원 | • 오창식(보도) 30만원 | • 박두식(관리) 10만원 |
| • 박연식(관리) 50만원 | • 박태환(관리) 20만원 | • 정복근(편제) 10만원 |
| • 하동근(보도) 50만원 | • 김양배(편제) 20만원 | • 김충식(ANN) 10만원 |
| • 최 천(이사) 30만원 | •故최인열(기술) 20만원 | |
| • 박화진(편제) 30만원 | • 손규현(관리) 20만원 | |



표재순



전종건



윤여복



박연식



하동근



최 천



박화진



석남수



이순임



오창식



박태환



故최인열



손규현



김양배



김기연



유철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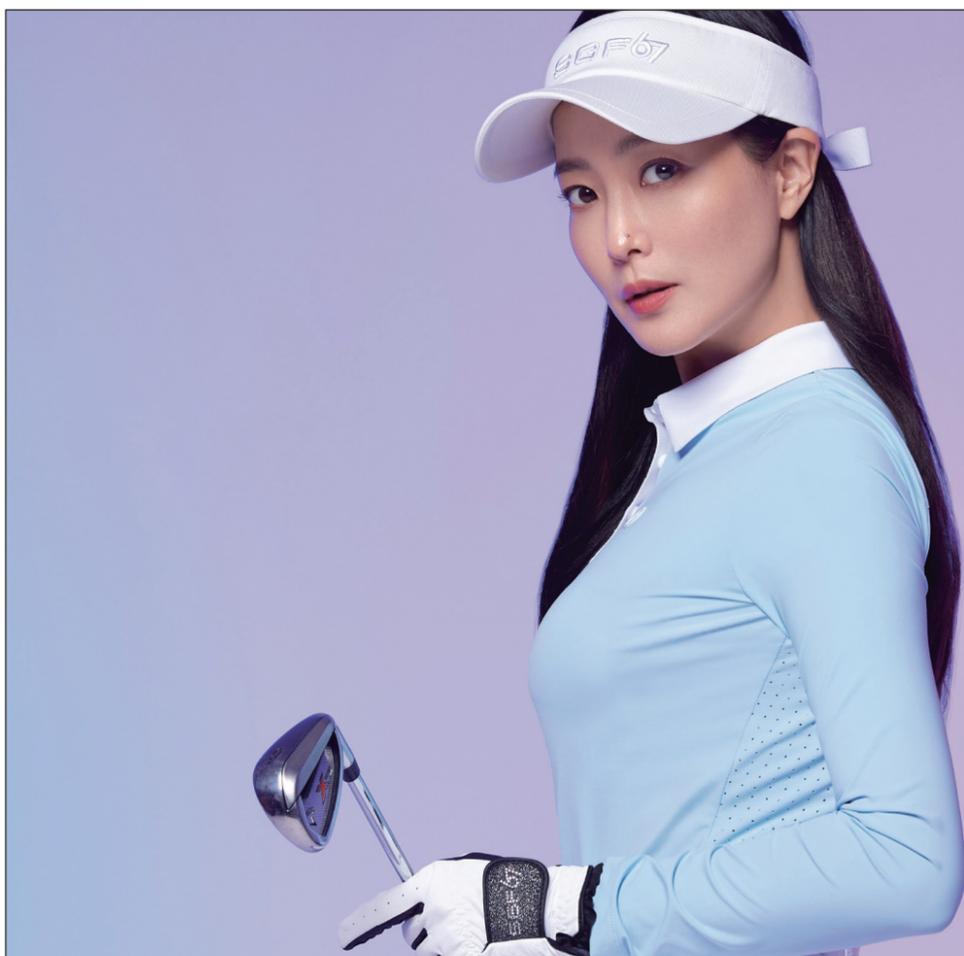
박두식



정복근



김충식



SINCE 1967

슈퍼리어 53년, 패션의 흐름을 이어 갑니다.

소재, 컬러, 디자인

골프웨어
SGF67
SUPERIOR

회원동정/동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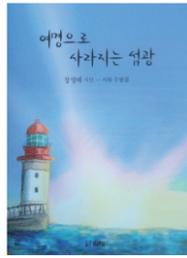
▶박기병(관리)
올해 9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3월 4일에 열린 (주)전자랜드주주총회에서 2013년부터 계속해 온 홍보담당 상임 고문에 또 한 차례 연임됐다. 임기는 2022년 3월까지.

▶장영배(보도)



코로나19에 갇혀있던 동안 시집 '여명黎明으로 사라지는 섬광閃光'을 출간했다. 한편 언론인단체인 전

연회소담회는 후배들의 귀감이 된 점을 들어 장 회원을 '2020 자랑스런 전언인상' 특별 부문 수상자로 결정하고 시상했다.



▶한문동호회(회장 양진수)

한문동호회반 개설 10주년을 맞아 이견세(편제) 전 훈장의 지도로 '노자老子·장자莊子'편을 개설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회원들께서는 권혁화 총무(010-3739-0889)에게 연락하면 된다. 강의 시간은 매주 화요일(경서반)과 목요일(노장반) 오전 10시~12시다.

회비와 발전기금계좌

연회비는 사우회에 대한 회원들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사우회 운영과 경조비로 사용됩니다.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들께서는 사우회가 드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또한 발전기금은 사우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사우회를 아끼는 마음

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 납부와 발전기금에 관한 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mbsau.com) 또는 사무처(722-741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박성제(보도)
1993년 보도국 입사. 정치, 경제, 사회부 기자. 보도국장 역임. 현재 MBC 사장.



조수현(보도)
1985년 보도국 카메라기자 입사. 2020년 뉴스콘텐츠 취재부에서 정년퇴직했다.



강지웅(편제)
1993년 교양제작국 PD 입사. 기획조정본부장 역임. 현재 MBC 드라마본부장.



이승엽(관리)
1984년 입사. 광고국장, 감사국 국장급 근무. 2018년~2021년 제주 MBC 사장 근무.



이호영(보도)
1985년 보도국 입사. 스포츠취재부, 영상콘텐츠부 등 근무.



송성운(관리)
1995년 총무국 입사. 2020년 총무국 총무부에서 정년퇴직했다.



주원국(보도)
1986년 보도국 카메라기자 입사. 뉴미디어뉴스국 등 근무.



조정선(편제)
1984년 라디오PD 입사. 일본지사장, 미래방송연구소 등 근무.



정순원(보도)
1985년 보도국 입사. 2020년 보도국 컴퓨터그래픽부에서 정년퇴직했다.



김호경(편제)
1984년 라디오국 PD입사. AM/FM 다수 프로그램 연출. 2018년 퇴직했다.



유덕진(보도)
1985년 보도국 입사. 뉴스영상콘텐츠국에서 근무. 2020년 정년퇴직했다.



이원영(기술)
1988년 기술국 입사. 기술인프라국 TV송출부에서 근무. 2020년 정년퇴직했다.



서민수(보도)
2001년 보도국 입사. 경제부, 보도제작국 등에서 근무..



송기웅(관리)
2000년 총무국 총무부 입사. 총무국 차량부에서 근무.



송인혁(편제)
1996년 영상미술국 입사. 영상1부에서 촬영감독으로 근무. 2020년 퇴직했다.



정윤석(보도)
1983년 보도국 입사. 2020년 뉴스콘텐츠국 뉴스콘텐츠 편집부에서 정년퇴직했다.



김선천(보도)
1987년 보도국 입사. 국제부 등에서 근무. 2020년 뉴스콘텐츠편집부에서 퇴직했다.



김성식(보도)
1992년 보도국 입사. 스포츠취재부장, 콘텐츠제작국 부국장, 심의위원 등 역임.



정연곤(관리)
1987년 총무국 입사. 2020년 정보보호팀에서 퇴직. (주)삼정글로벌컴퍼니 대표이사.



박병주(관리)
1980년 입사. 총무부장, 방송콘텐츠부장, 계열사관리부장, 감사국 부국장 등 역임.



류시준(기술)
1987년 입사. 제작기술국, 기술연구소, 라디오기술부, 감사국 등에서 근무.

경조사항

구순: 박기병(관리) 32.5.20

팔손: 이영일(편제) 42.4.2 고재원(관리) 42.4.7 송재익(ANN) 42.4.11
 김건영(편제) 42.4.20 박준하(관리) 42.5.1 박해선(대구) 42.5.3
 심규성(관리) 42.5.115

고희: 손진우(편제) 52.4.7 박춘우(관리) 52.4.8 김동환(기술) 52.4.15
 강현식(편제) 52.4.20 이재은(보도) 52.5.13 최규철(편제) 52.5.13
 이교윤(편제) 52.5.13

회갑: 최종수(관리) 61.4.15 김장겸(보도) 61.5.8 변종민(기술) 61.5.14

결혼: 이승엽(관리)장남 1.30 윤창호(편제)차녀 2.28 손규현(관리)장녀 3.6
 강철용(편제)아들 3.27 김충식(ANN)아들 4.10 하동근(보도)장녀 5.22
 조승필(이사) 아들 4.3

부음: 이효석(관리)빙부상1.24 한웅희(업무)모친상1.25
 정연곤(관리)부친상1.27 송기남(관리)빙모상1.28
 나종석(보도)모친상1.28 천복용(기술)빙모상1.29
 손목현(기술)부친상2.1 신동석(관리)모친상2.12
 김현국(관리)빙모상2.15 이상용(보도)모친상2.16
 박은숙(관리)부친상3.1 김희을(기술)모친상3.8
 윤상준(편제) 모친상 2.18 이형관(보도) 빙모상 2.26
 오창식(보도) 모친상 2.26 송원근(관리) 부친상 2.27

*정정합니다. 지난 호에 실린 <박영달(기술) 배우자상>은 오보임으로 바로잡습니다.

연회비

2021년: 강복주 강찬임 강현식 고창근 권오용 권태환 김광안 김상옥 김선희 김정명 김종국 김종오 김채영 김철동 나종석 남궁미 노영인 박기윤 박민정 박종순 박찬순 박화진 반주원 백명순 서운선 서정호 손도정 송기남 안종순 안주희 엄기원 염영수 오명환 유무정 윤남현 이명순 이성호 이인숙 이효석 정명환 정연호 정영희 정진도 최영삼 최운형 최정일 최화숙 최홍림 표찬일 홍신숙 홍이표 황경자 고준호 김양배 남기두 유희렬 정봉일 차재영(80세 완납)

2022년: 김광곤 홍성기 2024년: 윤상준

주소 / 전화번호 변경

고문: 노서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우윤근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62
편제: 이결범 경기 광명시 새터로 44-8

이용석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6길36-8
보도: 조현모 경기 하남시 덕풍로65번길 25
기술: 김세하 강원 춘천시 북산면 삽다리길
박영달 인천 서구 검단로 836
윤종선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행정중앙2로
장정기 부산 남구 오륙도로 85
관리: 김홍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612
송기웅 경기 남양주시 늘을1로270
이성수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8
이순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1길
정형진 경기 과천시 별양로 164
업무: 윤영례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44길31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환의(특별)
1월 11일 별세.
향년 90세, 경향
신문 정치부장,
내무부 기획관리
실장, 전라북도
지사를 지내고 1971년 MBC 사
장으로 취임해서 1980년까지 9
년 3개월간 재임했다. .



김광배(관리)
1월 23일 별세.
향년 69세. 1983
년 MBC청룡야
구단으로 입사.
홍보실 출판부 등
에서 근무하다가 1994년 퇴직
했다. 최근까지 '바른체형 중앙
연수원장'으로 근무했다.



윤상도(기술)
3월 1일 별세. 향년 80세. 1970년 기술국 라디오기
술부 입사. 라디오 드라마 녹음을 전담했다. 1998년
퇴직 후 MBC미디어텍 이사, 문화음향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황진환(편제)
3월 9일 별
세. 향년 84세.
1971년 미술부
입사. 뉴미디어
국데이터뱅크



장기욱(편제)
2월 23일 별세.
향년 84세.
1970년 TV제작국
미술부 입사. 의상
실에서 근무했다.

팀에서 퇴직.

이환의李桓儀 前 사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차인태(사우회장)

백암白巖 이환의 전 사장님께서 1월 11일에 작고하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 향년 90세. 고인의 유언에 따라 가족들만의 장례를 치르고 선산에 수목장으로 안장했다고 하니 영전에 분향할 기



이환의 MBC 사장과 김종필 국무총리(1975)

회조차 가질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이다. 돌이켜 보면 1971년, 그가 만 40세의 젊은 나이로 제5대 사장에 취임할 당시 MBC는 인사동 사옥을 벗어나 정동에 터를 잡고 TV방송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던 참이었고, 취임하던 1971년에는 FM방송을 최초로 시작했다. 1974년에는 경향신문사를 인수해 '문화경향'이라는 거대 통합 미디어법인을 만들었지만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 분리되고, 74명의

본사 해직자와 함께 이 사장 또한 대표이사직에서 밀려났다. 그가 재임한 동안 MBC는 기록에 남을 크고 굵직한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작했었다. 대표적으로 1978년, 방송의 국제화를 추구하고자 열린 '제1회 서울국제가요제'는 세계 10개국 정상급 가수 21명이 참가한 초대형 행사였으며, 젊은이들에게 꿈과 낭만을 심어준 '대학가요제'와 '강변가요제'는 이후 MBC가 '시대를 앞서가는 공영방송'이라는 위상을 확립하는데 기여했다. '수사반장' '새엄마' '명랑운동회' 등 당시 장안의 화제를 일으

킨 TV 프로그램은 거의 MBC의 작품이었다. 사장 재임 9년 3개월. 최장수 사장으로서 그는 AM/FM/TV를 아우르는 우리나라 최대의 민간방송 네트워크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상업방송의 선두주자로서 MBC의 기틀을 확고하게 한 분이셨다. 신문기자로 출발해서 내무부 공무원, 도지사, 방송사 사장, 정치인, 대학 설립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시다가 오랜 병고를 겪어 별세하신 이환의 사장님의 명복을 모든 사우회원들과 함께 빌어 마지않습니다. 부디 편히 잠드소서.

김승월칼럼



김승월(편제·이사)

■ 배려

학생들에게서 이메일로 과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답한다.

하나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파일만 달랑 첨부해서 보내는 경우. 다른 하나는 자기 이름과 파일에 대한 설명을 쓰는 실무적인 경우, “저는 누구입니다. 무슨 과목 과제를 제출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사를 곁해 마음을 담아 보낸다. “교수님, 벌써 여름이네요. 늘 감사합니다.” 파일만 보내거나, 관련 내용만 적어 보내는 학생의 마음도 짐작된다.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당당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평가받기 위해서 일 게다. 어쨌거나 분명한 건 한 줄 인사말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점이다.

마음이 담긴 글을 받을 때면 나도 모르게 학생 이름이 뭔가 다시 보게 된다. 물론 평가는 공정하게 하지만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다. 소소한 인사말로 감정의 소통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발표할 때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한 번은 12개 팀이 10분씩 조별 발표를 했다. 10번째를 넘기면서 집중도가 눈에 띄게 떨어졌다. 11번째 발표할 학생이 등장했다. “지루하시죠?” 짧은 한 마디 말에 학생 얼굴을 다시 봤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핀 뒤 발표하려 한 것이다. 발표가 끝난 뒤, 학생의 세심한 배려를 칭찬해줬다. “제대로 발표하려면 먼저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마음의 소통이니까”

거두절미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남과 다투는 경우 특히 그렇다. 소비자가 서비스에 대해 항의할 때나 제품에 대하여 불평할 때 자주 그렇다. 다짜고짜 본론부터 말하거나 전후 사정 모르고 들이대기도 한다.

화풀이는 되겠지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해질까. 간호사가 아무런 예비 동작 없이 곧바로 주사 바늘을 찌르는 식이다. 다짜고짜 말하다 보면 탈나기 쉽다.

제대로 된 소통을 위하여

지금은 무한 경쟁시대다. 일은 빠르게 효율적으로 처리되며, 세상은 눈부시게 바뀌고 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실질적인 효과를 우선하게 된다. 소통도 그렇다.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말하려다 보면 곧 바로 본론부터 얘기하기도 한다. 톱 들여 말하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고, 단 몇 초가 아까울 수도 있다. 인사도 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대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소통이 될 뿐이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손뼉처럼 마주쳐야 한다. 말하기에 앞서 서로에게 서로를 배려하고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알맞은 인사말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불암산 요셉 수도원 이수철 프란치스코 신부님 강론에서 들은 말이다.

이메일이나 편지 보낼 때, 호칭 앞에 ‘존경하는’이란 말을 넣어 보세요. 모든 사람은 존재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상대에 대한 존경은 나에게 대한 존경과 직결됩니다. 말은 살아있고 엄청난 힘을 지닙니다. 존경받을 때 자존감도 살아나, 자기를 함부로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이란 말로 메일 쓸 때마다 마음이 가다듬어졌다. 아무래도 신경이 더 쓰이고, 정성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런 인사 받는 분 또한 정성스럽게 읽지 않았을까.

“남을 위한 작은 생각, 작은 배려가 모든 차이를 만들어 낸다.” 영국 작가 밀른 Milne의 말이다. 소통도 마찬가지 아닐까. 노크 소리 같은 한마디 말이 상대 마음을 열어 주기도 한다. 마음이 열려야 원하는 메시지도 제대로 전할 수 있다. 배려가 소통의 열쇠다.

■ 겸손

“시험점수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물었다. 요즘 대학생들 성적에 목맨다. 취업하기 힘들다 보니 더 그럴 게다. 평가 결과를 알려주고 나면 이런 저런 질문을 받는다.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백분율 석차로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드물게는 평가 결과보다 나은 점수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

기숙사 들어가는데 평점이 낮아서 어렵단가, 장학금이 필요해서 조금 더 높은 점수가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사정이야 딱하지만, 상

대평가라서 내 재량으로 성적을 올려줄 수는 없다. 학생들이 성적에 매달리다 보니 성적 이야기하면 귀를 쫑긋 세운다.

“시험점수를 잘 받으려면 저를 좋아해야 해요.” 낮 간지러운 소리라는 듯 몇몇 학생들이 피식 웃었다. 지난 중간 시험 결과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학기마다 학생들에게서 자기를 소개하고 수업에 바라는 점을 쓰는 ‘자기소개서’를 받는다. 더러는 수강 기회 갖게 됨을 감사하거나 존경을 표시한다. 그런 학생들은 성적이 좋은 편이었다. 이번 학기만의 우연인지 모르지만 결과가 그리 나왔다.

나 역시 좋아하는 교수님 과목 점수가 나온 편이었던 거 같다. 선생님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집중해 듣게 되고 선생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선생님이 불편하면 설명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비판적으로 듣다가 성적이 그르친 적도 있다. 해서 학생들이 너그럽게 나를 좋게 보아준다면 수업이 즐거울 것이며 성적도 잘 나올 거라고 했다. 가르치는 나 또한 학생들을 좋아하면 수업에 정성을 더 기울일 거고.

좋아하는 사람과의 소통은 편하고 즐겁다. 이해가 안되면 이해하려고 애써 준다. 상대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면 웃어 넘겨줄 수도 있다. 싫어하는 사람과의 소통은 반대다. 싫어하는 사람의 말을 끝이 끝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웁은지 그른지 따져본다. 심지어 틀린 부분을 애써 찾아내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상대도 눈치 채서 날카롭게 맞서게 된다. 말 안 통하는 사람 상대수는 싫어하는 사람일 게다.

남을 미워하면 소통의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미워하는 마음은 소통에서 소음과 같다. 남과 대화할 때 주변에 잡소리가 들리면, 소통하기 힘들다. 말하기도 쉽지 않고 듣기도 어렵다.

미움은 소통을 방해하는 심리적 소음이다. 상대에 대한 마음이 닫혀 있으니 말이 들리지 않는다. 말하는 의도마저도 잘못 생각하기 쉽다. 상대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내 마음 역시 상대에게 전하기 힘들다.

나 역시 좋아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미운 마음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미워하고 쪼렷맨다. 분명한 이

유가 있기도 하지만, 딱히 그 이유를 찾아내기 힘든 경우도 있다. 좋다가 미워할 수도 있고 미워했다가 좋아지기도 한다.

어쨌든 미움은 마음을 시달리게 한다. 미움을 풀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어떤 분은 ‘미움은 자기 마음에서 생긴 거니까 미움을 내려 놓으면 된다’고 조언한다. 옳은 말이지만 그게 어디 생각대로 되는가.

머리로 이해해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미워하면서 드러내지 않기도 한다. 약자인 경우 그러기 쉽다. 시택에 대한 미움, 상사에 대한 증오, 권력에 대한 분노, 상대가 강한 경우는 풀어내기 힘들다. 앞에서는 감추고 뒤에서 푸념하거나 미워하게 된다.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참는 경우도 많다.

본당 신부님 강론에서 들었다. “미움은 마음의 감옥”이라고. 미움을 어쩔 수 없이 못하고 되새기다 보면 헤어 나오지 못하고 갇혀버린다. 미움이 쌓이면 독이 무너지듯 분노가 폭발하고, 후회할 일을 저지르게 된다. 수습하는데 값비싼 대가가 뒤따른다. 이탈리아 격언 그대로다. “분노는 대단히 비싼 사치다.” 자신을 해치고 관계를 그르친다. 신부님은 덧붙였다. 미움의 감옥에서 나오려면 ‘겸손’해져야 한다고.

미국의 심리학자 리치 니카스트로 Rich Nikastro는 수많은 부부를 상담한 뒤 결과를 분석했다. 서로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했는데, 겸손을 실천하게 한 경우에 감정이 입이 더 잘 됨을 알게 되었다.

겸손해야만 상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미움에 시달린다면, 겸손하게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펴야 하지 않을까. 상대의 입장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마7:12)

성경의 황금률이다.

소통이란 결국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좋아하면 소통이 잘되고, 미워하면 소통이 힘들다.

남을 미워한다는 건 겸손하지 않다는 반증 아닐까. 좋아하는 것도 겸손해야 더 좋아하지 않을까. 겸손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소통을 기대하기 힘들다.

MBC 창사 60주년 기념
다시 읽는 그때 이야기

최초의 주일^{駐日} 특파원은 농구시합 중계방송도 했다



故 정순일

1963년 7월 6일 낮. MBC 개국 2년만에 방송 사상 처음으로 외국에 상주^{常駐}하는 특파원이 NWA편으로

김포공항을 떠났다(사진). 우리나라에 한 대박에 없던 무게 10Kg의 FM1 휴대용 녹음기가 부딪치기라도 할까 조심하며 비행기에 탑승한 나는 지정 좌석에 앉는 순간 전신에 맥이 확 풀리는 것을 느꼈다. 1년 가까운 특파원 준비 기간에 '5단계 장애물 경기'에 시달려 진이 빠질대로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제1년관은 MBC 내부의 반발. 7월에 고원증 사장이 부임해 '가난한 살림에 웬 특파원이냐'며 고개를 갸웃당한 데다, 보도과에서 '쟁쟁한 기자도 많은데 왜 PD가...'라는 항변을 했던 것. 제2년관은 공보부. KBS도 못 보내는 특파원을 신생 MBC가 보내겠다는 게 마음에 안들고, 주일 특파원이 더 늘어봐야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등의 이유로 3개월이 지나서야 통과시켰다. 제3년관은 외무부 여권과. 외화도 절약하고 중구난방인 외신을 다듬는다는 차원에서 상주특파원이 달갑지 않다는 것. 제4년관은 일본 법무성. '문화방송'이라는 언론기관을 모르겠고, 서울에 민영방송 상주특파원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비자를 줄 수 없다고 했다. 두 달동안의 씨름 끝에 "이제 수속이 완료됐습니다"라고 상무님께 보고 드렸더니 "회사 자금이 고갈됐으니 기다려라"는 것이 마지막 난관.

당시 주일 한국대표부 공보관실에는 '조선일보' 김윤환, '동아일보' 권오기, 유혁인, '한국일보' 이원홍, '경향신문' 이환의 등 베테랑들이 버티고 있었다. 팩시밀리

는 물론, 자동 다이얼 전화조차 없는 형편이라 국제전화국 교환대에 신청해서 번호를 받아 송고에 이용하곤 했다. 한·일 간의 국제전화 회선은 음질도 형편없이나빠서 간단한 기사는 국제전보국에 달려가 한 대박에 없는 타자기를 차례로 빌려 한글을 영어로 또 닥또닥 바꿔쳐서 송고해야 했고, 급한 기사는 특별히 '프레스 콜'을 부탁해서 전화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했다. 그런데 천우신조랄까, 방송 만이 누릴 수 있는 특전이 있었다.

그것은 'PTS(방송 프로그램 송신 서비스)'라는 라디오 중계방송 제도였다. 도쿄의 KDD에는 뉴스 스튜디오가 있어서 예약만 하면 이 스튜디오의 방송용 마이크가 서울국제전신전화국을 거쳐 MBC 주조나 뉴스룸에 바로 연결됐다. PTS는 한·일간 국제전화를 6회선이나 전용으로 쓰고 일반전화보다 우선 순위였기 때문에 신문사 특파원들이 국제교환원들에게 매달려 시간을 달라고 통사정하는 동안 MBC특파원은 KDD 본사 스튜디오에서 느긋하게 뉴스를 보낼 수 있었다. 마침 한·일간 국교 정상화 협상 막바지라 MBC는 이 우세한 통신수단 덕분에 항상 선문을 앞지를 수 있었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물론 장훈, 백인천 등 일본에 진출해 있는 한국 선수의 동정, 폭력단에게 살해된 프로레슬러 역도산의 장례식, 일본은행에 연수차 왔던 한국은행원 피살 사건 등 한국 관계 뉴스는 모조리 특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63년 11월부터는 '특파원의 시간'이 매주 20분 동안 편성되어 일본TV국의 초청으로 도쿄에 와있던 '후라이보이'의 견문과, 일본에서 유행하는 새 팝송으로 엮은 '후라이보이 아워'를 TBS 스튜디오를 빌려 매주 제작해서 보냈다.

특파원의 임무는 무궁무진했다. 최신 히트곡 레코드나 방송관계 자료와 정기 간행물 구입 및 발송부터 스포츠 중계방송권 협상과 광고 판매, 임원들의 일본 초청 수속, 비자 독촉 차 법무성 방문, 그분들의 체류동안 백화점과 시장, 식당 안내 등 비서업무까지. 며칠 동안의 일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하는 그분들을 모시고 공항으로 나가면 예외없이 짐 무게가 규정을 초과해 '오버 차지'까지 특파원이 부담해야 했다. 특파원의 한 달 체재비는 3백 달러(10만8천엔)인데 본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서너달씩 송금이 지연될 때는 녹음기를 들고 전당포를 찾았다. 그래도 사장 월급보다 많은 돈을 체재비로 받으니 그걸로라도 위안을 삼아야 했다.

1964년 9월. 본사에서 급전이 날아왔다. "도쿄올림픽 직전에 남자 농구 예선이 요코하마에서 열린다. 올림픽은 방송협회 결의로 공민영 합동 중계팀이 중계하지만 예선은 다르다. 속히 일본농구 협회로부터 방송중계권을 따고 중계회선을 확보하라"는 내용이였다. 동분서주하며 모든 준비를 끝내고 "아나운서 언제 보냈니까" 물었더니 이게 웬 날벼락인가. "아나운서는 올림픽 중계반 규약에 묶여 보낼 수 없으니 당신이 직접 해보기 바란다"고. 중계료를 10만엔이나 지불했고 중계회선 청약도 끝난 마당에 안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서점에서 농구 규칙에 관계된 책을 사서 열심히 읽으며 일본 텔레비전의 농구 경기 중계를 따라서 녹음해봤는데 재생해보니 내가 들어도 들을 맛이 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역사적인 9월 25일이 다가왔다.

한국팀은 12시에 강호 쿠바와 대결하기로 돼 있었다. 요코하마 문화체육관에 도착하니 2층 관중석 한복판에서 일본 KDD 중계팀

선수 명단을 받아 들고 중계석으로 돌아와 우리 선수들의 이름부터 외웠다. 4번 하의건, 5번 이병구, 6번 김영기, 8번 문현장, 10번 신동파, 11번 방 열, 13번 김영일... 쉽지 않았다. "참 우리 스포츠 캐스터들, 기억력들이 좋구나" 새삼스레 스포츠 캐스터들에게 존경을 보내고 있는 사이에 시합이 시작됐다. 선수 이름은 아예 생략하고 백넘버 몇 번 선수가 공을 넣었다 못 넣었다는 것만 전달하기도 바빴다. '45도 각도에서 슛' '원 핸드 슛' '프리드로 슛' '롱 슛' 정도는 나도 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주위 섬기는데 열이 오르니까 안경에 김이 서리고 스코어판도 보이지 않게 됐다. 한국이 앞섰다가 뒤섰다 하기 시작했다. "우리 선수 슛..." 하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골이 되어 한다는 말이 "어어.. 골인. 슛!" 했다.

이렇게 해서 한시간 15분이라는 피를 말리는 시간이 지나갔다. 게임은 에상을 뒤엎고 한국의 승리로 끝났으니 '서툰 중계'로 낮 12시에 최고의 청취율을 올린 본사는 득의만만했지만 앞으로 남은 다섯 게임을 어떻게 할건지 눈앞이 캄캄했다. 다행히 저녁에 서울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풀렸다. 서툰 '관전 중계'를 들으신 높은 어른이 MBC에 까닭을 물어왔기에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렇다면 합동중계반이 미리 가라'는 분부가 있어 다음 날 올림픽 캐스터들이 비행기를 탄다는 것이었다.

1965년 12월 서규석 씨에게 특파원 자리를 인계하고 서울로 돌아왔고, 1968년 서규석 특파원이 라디오 편성국장으로 귀국함으로써 주일 특파원의 기자 겸 프로듀서의 시대는 끝났다.

〈1998년 『MBC가이드』에서 발췌〉

필자는 MBC R,TV편성국장과 KBS TV국장, 보도본부장, 방송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지내고 2009년 11월 27일 별세했다.



MBC 창사 60주년 기념
다시 읽는 그때 이야기

나는 살고 너는 죽다니!!

-‘명랑운동회’를 떠나 보내며-



변웅전(ANN)

유세차(維歲次) 갑자년 시월 열나흘날. 미망인이 된 나는 약관 열네 살 11개월로 요절하는 ‘명랑운동회’ 너의 과거와, 너와의 추억과, 나의 회포를 연민의 정과 함께 총총히 적어 영결하노라. 지금으로부터 15년전, MBC TV가 탄생한 1969년 11월에 너는 ‘유쾌한 청백전’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태어났었다. 전생에 기막힌 인연이 있었는지, 너는 KBS에서 7년동안이나 퀴즈 프로그램의 MC와 스포츠 중계 캐스터로 활약해 온 나와 MBC에서 연결됐었다. 믿어줄지 몰라도 사실 나는 너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점잖은(?) 편이었다만, 너를 만난 뒤로는 펍 아해졌다는 얘기도 자주 들었다.

사회 각계 명사들과 인기 연예인들을 총동원해 청, 백팀으로 나누고 번뜩이는 재치와 깜짝 놀랄만한 특기 자랑으로 엮어졌던 너는 곧 장안의 화제가 됐다. 3년 후 1972년에는 MBC의 모든 프로그램을 통틀어 시청률 1위를 기록할만큼 시청자들의 총애를 받았었다. 이에 한층 힘을 얻은 너는 1976년 10월 ‘명랑운동회’라는 새 옷을 갈아입고 보다 활기차고 거창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새 출발을 했었다. 너를 녹화하던 곳도 아담한 정동 C스튜디오에서 ‘문화체육관’(당시는 김일체육관)으로 옮김으로써 본격적인 운동회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굳센 체력·슬기로운 마음·건강한 육체”라는 슬로건 아래 마음껏 뛰고 달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고 우리의 기쁨과 긍지는 그야말로 천하무적이었다.

그렇게 굳세고 슬기로운 내가



바람 끝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지는 오늘 이렇게 홀연히 가다니...가뜩이나 쓸렁하고 어수선한 계절에 애석하고 허무한 마음을 가누기가 어렵구나. 이 슬픔을 어디에 비할까. 수족같은 형제를 잃은 슬픔이 이보다 더하겠느냐. 야속하게 떠나버린 너의 집에서 서서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니 너를 그렇게도 아끼고 가꾸고 애썼던 프로듀서의 숫자를 헤아리기도 수월찮구나.

7년 가량 진행했던 ‘유쾌한 청백전’ 시절의 김경태, 이재휘, 유수열, 이궁희, 민창환, 이창식, 차재영, 전우중, 신승호와 대략 9년 동안 ‘명랑운동회’를 이끌어 온 이창식, 신승호, 배상석, 황효선, 은희현 등 수많은 얼굴들이 눈 앞에 떠오른다. 어디 그 뿐인가. 음악을 담당했던 마상원, 게임 구성의 정동석, 이응선도 잊을 수 없구나. 너를 키워온 PD들 중에 차장으로 부장으로 승진한 사람도 많으니 너도 이 기회에 ‘부장급’으로 추서해도 좋으련만.

어쨌거나 14년 11개월이 지나 너의 부고를 받고보니 나의 아픔은 유난히 크다. 싫으나 좋으나 혼자 MC를 해와서 그런가. 운동복에 호루라기를 목에 걸고 너털웃음을 날리며 출연자 뿐 아니라 방청객, 안방식구들과 함께 웃고 즐기는 동안 미운정 고운정이 들대로 든 탓일게다. 돌아보니 참 사연도 많고 곡절도 많았구나. 오래 프로그램을 하다보니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어지는 출연자도 있었지. ‘청백전’ 시절에는 황금심, 황해가 출연했는데 ‘운동회’로 넘어 오니까 고영준, 전영록이 나오더구나.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첫 인사를 드리는 시간으로도 큰 몫을 했었지. 이제 그들은 인기스타로 발돋움했는데 너는 정녕 사라지려 하는구나.

‘오래 살면 수난도 많다’는 영국 속담처럼 너는 참으로 많은 출연자들의 팔과 다리, 허리를 부러뜨렸지. 또 계절을 막론하고 시원한 화면을 보여주

줬다는 일념으로 걸핏하면 밖으로 나갔었고 야외라는 여건 때문에 벌어진 잊지 못할 일도 많았지. 녹화방송이라서 시청자들이야 알까 닭이 없었지만 말이다. 흰 눈에 덮힌 용평 스키장에서 찍은 운동회. 눈 위를 미끄러지며 뛰고 달리는 출연자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놓칠세라 무아의 경지에서 촬영하다가 갑자기 세차게 불어오는 강풍에 그만 중계차 지붕에서 카메라와 함께 굴러 떨어지는 카메라맨의 아찔했던 순간.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일어난 그를 부둥켜 안고 ‘살아있음’에 함께 기뻐하며 감사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구나. 어느 해 여름인가, 모터보트를 이용해 녹화를 하던 중 보트가 뒤집혀 MC인 내가 질식하는 바람에 길고 긴 NG를 낸 적도 있었지. 이렇듯 온갖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오로지 시청자들의 눈에 들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위기를 넘겨오지 않았느냐.

수십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외국 프로그램들처럼 너도 장수하기를, ‘인생은 짧아도 프로그램은 길다’는 말이 진담이기를 그렇게 빌었는데 어찌하여 ‘급성 간염인가 과로인가로 죽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던 나는 살고 네가 죽는단 말이냐. LA 올림픽 파크에서 재미동포만 여명과 함께 ‘특집 명랑운동회’를 거창하게 해보기도 하고, 일본 우에노공원 하늘에 빛깔도 선명한 태극기를 휘날리게 하고 그 아래에서 재미동포들을 모셔다가 그동안 맺힌 한을 씻기라도 하듯 목청껏 응원도 하고, 움추렸던 몸과 마음을 펴고 힘껏 뛰고 달리는 ‘재일동포 명랑운동회’도 해보아야 했는데 오호 애재라! 할 일이 그토록 많은 네가, 하고 싶은 일이 그토록 많은 네가, 잠실 메인스타디움에서 펼칠 대운동회 계획이 거의 매듭지어져 가는 이 가을에 홀연히 가다니...

14년 11개월이라는 세월이 죽기에 알맞은 때인지 찬찬히 생각해본다. 그러니까 몇몇 특집까지 합해서 모두 8백 여회, 방송 시간으로 따지면 1만 8천 분쯤이 되겠구나. 말이 쉽지 8백여 시간을 채우려면 밤낮으로 쉬지않고 계속 방송해도



한달 이상을 해야 할 분량 아니더냐. 거기에 지금까지 동원된 출연자도 8천 여명에 이르고 함께 응원하면서 함성과 박수를 보내준 방청객도 2백만명이 훨씬 넘을 것이다. 지역적으로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전주, 원주, 마산, 울산 등 전국의 운동장에서 각 시도민들을 흥분하게 했던 네가 아니더냐.

하기야 세상에 태어났다가 6개월 만에 타계한 너의 동료들 무릇 기하(幾何)며 반년도 못 넘기고 비명횡사한 너의 형제들이 또한 무릇 기하인가. 그들을 생각하면 열네살로 요절한 너를 슬퍼하는 것이 지극히 정情(정)에만 치우친 잘못된 판단인 듯싶다. 그만하면 장수한 셈이지. 한국의 프로그램 수명으로는 ‘환갑, 진갑 다 살아 온 셈’이라고 자위라도 해야 할 것 같구나. 이제 모든 것은 끝났고 내가 나에게 남긴 것이라곤 낡은 운동복 몇 벌과 때묻은 호루라기, 거기에 갖가지 추억들과 서글픈 마음 한 조각 뿐이다. 그러나 이것도 머지않아 사라져 갈 것들. 활자 미디어는 흔적이라도 남지만 전파 미디어인 TV는 허공으로 흩어지면 그 뿐. 허무하고 무상함 속에 사라져버린 너.

아무리 가다듬으려 해도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너와의 인연을 몇 자로 적어 너의 묘비(墓碑) 아닌 묘비(妙碑)를 대신하고자 총총히 여기 울리노라. 춘삼월 호시절 어느 날에 너와 내가 시절 인연이 닿아 또다시 만나게 되거든 그 때는 정말 후회없고 여한이 없도록 열싸 안고 한번 신나게 뛰어 보자꾸나. 어떤 모습으로 환생할런지 몹시궁금하구나. 아무쪼록 그 때까지 ‘굳센 체력, 슬기로운 마음, 건강한 육체’를 고이 간직하고 부디 편안히 잠들기를 바란다.

오호 통재라, 오호 애재라!
<1984년 10월호 『MBC가이드』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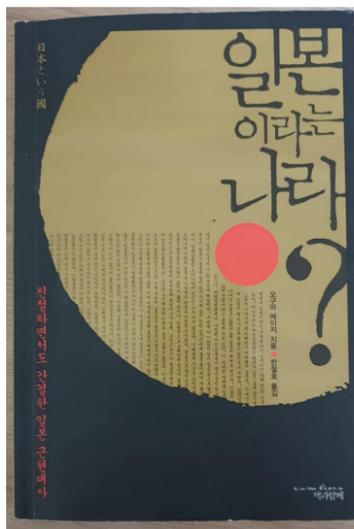
조 정 선(편제)

프레임 frame 이란 말을 요즘 곧잘 사용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틀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예로 드는 그림이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아라비아 숫자 6(혹은 9)이 있는데 한 쪽은 6이라고 하지만 다른 쪽은 9라고 합니다. 둘다 맞습니다. 그들 각자는 자신의 프레임에 따라 숫자를 보니 말입니다.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프레임을 설명할 때 드는 예로는 인지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가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서 던진 화두는 “왜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자질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를 매년 이겼는가?”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로 든 것이 ‘엘 고어’와 ‘존 캐리’에 잇달아 승리를 거둔 ‘조지 부시’였습니다만 최근에는 트럼프가 그의 이론을 더욱 확실히 해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프레임’을 선점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언어를 쓰지 말라’입니다.

부시가 대통령 후보일 때, 그는 ‘세금 인하’라는 말 대신에 ‘세금 구제 Tax Relief’란 용어를 프레임으로 걸었습니다. 이 때 민주당은 “이것은 ‘세금 인하’의 속임수며 부지만 더 살찌울 것”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결과는 코끼리(공화당을 상징하는 동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해 선거에서 패하고 맙니다. 이번 미



국 대선에서 ‘트럼프’는 공화당 인물답게, ‘바이든’을 향해서 결정적인 프레임을 그물로 내던졌지요. ‘자유對사회주의’ 구도였습니다. 바이든을 ‘급진 좌파’로 규정했던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쪽이 거기에 반박하지 않은 건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프레임으로 맞섰습니다. 트럼프를 ‘인종차별주의’ ‘거짓말쟁이’로 설정한 겁니다. 영악한 트럼프는 이런 프레임에 한 번도 ‘자신이 왜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닌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선의 결과가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지만, 트럼프 쪽은 대선결과 불복의 ‘대선 사기詐欺 프레임’을 들고 나왔으니 공화당은 역시 ‘프레임의 정당’입니다.

오구마 에이치(小熊英二)가 쓴 ‘일본이라는 나라’는 14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나라 일본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 문제가 터질 때마다 매번 “재들은 왜 저러지?”라는 시각으로 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아~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구나!”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서두에 언급한 ‘프레임’에 관한 겁니다. 일본의 1만 엔짜리 지폐의 모델은 근대 사상가이자 게이오대학의 설립자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입니다. 그가 일본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일본이 근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걸 실천했습니다. 1885년에 쓴 후쿠자와의 <탈아입구(脫亞入歐)>이론입니다.

우리 일본의 국토는 아시아의 동쪽 끝에 있지만, 국민의 정신은 이미 아시아의 케케묵은 구태의연함을 탈피하여 서양문명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불행한 일은 이웃에 나라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중국이고 또 하나는 조선이다.(중략) 이들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나라가 망해 국토는 세계의 문명 여러 나라들에 분할될 것임에 한 점의 의혹도 없다. 왜냐하면 홍역과 같은 문명개화의 유행에 직면하면서, 양국은 그 전염의 자연적 추세에 등을 지고 무리하게 이것을 피하려고 밀실 안에 틀어박혀 공기의 흐름을 막고 질식하고

프레임은 함정(陷穽)인가

있기 때문이다.(중략) 우리나라는 이웃나라의 개명을 기다려 함께 아시아를 부흥시켜 갈 여유가 없다. 차라리 아시아의 대열에서 벗어나 서양의 문명국과 진퇴를 같이하며(중략)”

당시 동양의 위정자들은 ‘동양對서양’ 프레임 외에는 어떤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만, 후쿠자와는 동양은 야만, 서양은 문명으로 나누고 일본을 슬쩍 서양에 끼워 넣음으로써 ‘문명對야만’의 프레임을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남의 나라를 침략할 정당성을 추가합니다.

“서양은 대다수 국민이 보편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문명국가가 된 것이다. 대저 교육이란 것은 사람의 욕구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 욕구가 국내에서 출동하면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밖으로 돌려야 한다. 서양이 식민지 지배에 나선 것은 그 때문이며 일본도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 교육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학문의 권장’이라는 책을 써서 ‘왜 일반인들이 강박교육(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청일전쟁을 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읽기 쓰기나 산수도 할 수 없는 병사 따위는 근대 전쟁에서는 쓸모가 없다. 병사들이 명령문이나 병기의 설명서도 못 읽는다든지, ‘백 발 쏘!’라는 명령을 받아도, 백까지 수를 셀 수 없다면, 전쟁하는 데도 상당히 고생한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1895년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둬 국가재정의 4년 치 이상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받아냈고, 이 돈의 상당 부분을 교육에 퍼부었습니다. 1900년부터 소학교에는 수업료가 폐지됐고, 아이들은 성적에 따라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고, 다양한 직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단순히 ‘스킬(skill)’을 알려주는 것만은 아니죠. 교육 받은 사람일수록 외부로 분출하는 다양한 욕구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주입시킬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특히 천황제인 일

본에서는 ‘존왕애국(尊王愛國)’의 전체주의가 후쿠자와 유키치의 침략주의와 결합하며 일본을 전쟁에 빠뜨리는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벌인 걸 두고 다들 고개를 가우뚱합니다. 대개 남의 나라를 침략하려면 군사력이 통상 3배는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3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당시 일본은 미국에서 국내 석유 소비량의 80%를 수입해 썼는데 그걸 끊으니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전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실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침략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독점하려는 일본에 대해서 미국의 견제가 석유금수로 나타났고,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일본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자기들의 이기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왜, 패배할 걸 뻔히 알면서 전쟁을 5년 가까이 끌었는가”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중략> 전쟁의 마지막 1년에는, 누가 어떻게 보아도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다. 단지 그들은 항복조건을 유리하게 하려고 우선 국지전에서 이긴 다음, 항복교섭을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항복 조건의 개선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천황제를 지키는 것, 두 번째는 전범재판을 일본 측에서 진행하는 것이었다. 전범재판이 연합군 측에서 이뤄진다면 일본군이나 정부 고위층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점은 명백했다.(중략) 그래서 지는 것이 뻔한 전쟁을 지연시켜 병사나 민간인이 대량으로 죽게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군들이 천황을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린다는 뜻의 말이 유행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가끔 쓰는 옥쇄玉碎라는 표현이지요. 위의 내용을 보면, 천황과 군부, 정부 고위 관료들이 자기들의 비굴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끝낼 수도 있던 전쟁을 질질 끌면서 말단 병사나 민간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거지요.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인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별 일 없죠?



김수량(고문)

“형, 별 일 없죠?” 수화기 너머에서 후배가 묻는다. “별 일 없나?” 시골 고모님께서 문자를 주셨다. “별 일 없지?”

주먹악수를 나누며 친구가 묻는다. 그 밖에도 ‘별 일도 아는데’ ‘별 일이나 된 듯이’ ‘거 별 일이네’ 등등.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그 ‘별 일’은 대체로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인가.

요즘이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단한 ‘별 일’이니까 ‘혹시 코로나 증상은 없느냐’는 뜻이라고 나름 짐작해보지만 보통 때 언급하는 ‘별 일’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 아마도 ‘별 일 없냐고 물어보는 인사는 ‘통상적이 아닌’, ‘특별한’ 어떤 일이 있느냐는 뜻일 터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염려를 전달하는 의미가 포함됐다고 보면 되겠을까 싶긴 하다.

일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방역조치로 일상생활이 무너진지 오래다. 그동안 일상의 리듬에 따라 별 생각없이 해오던 일들이 문득 낯설어지는 경험도 한다. 이 상황이 얼마나 더 같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몇 달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가고 싶은 데 못 가고, 하고 싶은 일 못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

는 이 상황이 이대로 2~3년 더 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상은 아마도 전혀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 아닐까 싶다. 그동안 마스크 쓴 얼굴에 익숙해진 탓에 마스크 벗은 상대의 맨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까.

어느 덧 거리두기에 익숙해져서 여럿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처벌받을까 봐’ 불안하지는 않을까.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나서 손을 씻지 않고 있으면 마음이 꺼림직하지는 않을까. 아이가 가벼운 열이 나기만 해도 겁이 떨쳐 나고 가슴이 쿵 내려앉지는 않을까 등등 보통 때라면 하찮은 일에 불과한 것들이 심각한 고려의 대상이 될 듯하다.

대체로 사람들은 ‘일상’의 소중함을 각별하게 느끼지 않고 살고 있다. 먹고, 말하고, 일하고, 걷고, 만나고, 자고 깨는 행동을 매일 반복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대단한 일인지는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체의 일 부분에 문제가 생겨, 늘 해오던 동작에 불편을 느낄 때 비로소 일상의 의미를 생각한다. 꼭 생사를 가름하는 큰 병이 아니더라도 사소한 고장, 예컨대 종이에 스쳐 손에 작은 상처만 생겨도 당장 손의 사용에 지장을 받아 “아, 손이 멀쩡하

다는 게 그렇게 편안한 거였구나”를 깨닫는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너무 당연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소변이나 대변 배설이 어느 날 갑자기 제대로 되지 않을 때의 낭패감이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그거야말로 ‘별 일’ 중의 ‘별 일’이다.

생각해보니 ‘별 일’은 대단히 주관적이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흔한 일이 다른 이에게는 상상조차 하지 않던 ‘별 일’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계단 하나, 문턱 하나도 어린애들이나 시각장애인이거나 휠체어를 타는 사람에게는 혼자 넘을 수 없는 ‘별 일’로 다가오고, 아이들에게는 주사 맞는 일이 끔찍한 ‘별 일’이지만 입원 환자에게는 한날 일상에 불과할테고, 기혼자에게는 추억에 불과한 결혼식이 처녀, 총각에게는 엄청 가슴 두근거리는 ‘별 일’일 것이다.

공기 좋은 시골마을에서 두레박으로 우물물을 길어 먹는 사람의 눈에는 생수를 사먹는 대도시 사람들의 생활이 ‘별 일’로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우리네 삶의 모습이었다.

살면서 ‘별 일’을 슬하게 겪은 사람들은 대체로 감정의 기복을 보이지 않는다. 여러 모양으로 일상 생

활을 위협하는 ‘별 일’들로 인해 이미 감정이 닳고 뭉개졌기 때문일게다. 여러 자식을 낳아 키우는 과정에서 두어 명은 잃어버린 아픈 경험을 가진 늙은 어머니의 얼굴에 더는 이렇다 할 표정이 없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그런가 하면 ‘별 일’은 사람의 일생을 바꿔 놓기도 한다.

한달 전까지 멀쩡하던 내 친구가 최근 코로나에 감염돼 폐렴으로 세상을 떠난 일, 주식의 폭등이나 폭락,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배우자의 불륜, 전쟁이나 재난 등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별 일’들로 인해 사람들의 안정된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자주 본다.

2021년, 우수 경칩도 지나고 춘분이 널모레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데 제발 올해는 춘래불사춘 春來不似春 따위 읊지않고 지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마디로 ‘별 일’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기왕이면 ‘별 일’ 없나는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면 더 좋겠다.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5월 사우회 단합대회에서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에게는 ‘별 일’ 없죠? 라는 인사를 건네는 정도 좁은 환하게 웃으며 기꺼이 할 생각이다.

사우회원 여러분, 그날까지 모두들 ‘별 일’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th Import Goods Fair 2021 Korea's Only B2B Import Goods Sourcing Fair

국내 유일의 수입상품 소싱 B2B 전문 박람회

2021 제19회 수입상품전시회

역대 최대 성과로 글로벌 전시회로 한 단계 도약!

2021.7.22 - 7.24

코엑스 C홀